

## 지원인원·단가가 2배 확대된 '천원의 아침밥'과 함께 할 대학을 모집합니다.

-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를 2천원으로 인상하고 식수인원도 450만명분으로 확대
- 참여 희망 대학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농정원)으로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「천원의 아침밥」 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.

「천원의 아침밥」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(‘22년 기준 59%)이 높은 청년층(대학생)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(1천원 → 2천원)와 식수인원(233만명분 → 450만명분)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,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·점검,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.

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(단, 야간·사이버·원격 대학 등 제외)이 가능하며,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(학교소개서, 운영 계획 등)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(rice1000@epis.or.kr)으로 제출하면 된다. 신청기한은 2월 5일(월) 10시부터 2월 19일(월) 18시까지다.

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\*하여 2월 23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, 3월 신학기에 맞춰 「천원의 아침밥」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\* 운영 계획, 참여일수, 참여의지 및 여건, 품질관리 및 운영방안, 식수인원 산정 타당성 등

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“이번 단가 인상과 식수인원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”이라고 하면서, “「천원의 아침밥」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쌀 소비도 늘리고 쌀 공급과잉 구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천원의 아침밥 지원인원 및 단가 2배 확대 인포그래픽
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	책임자	과 장	조은지 (044-201-2911)
		담당자	사무관	조수영 (044-201-2914)



<붙임> 천원의 아침밥 지원인원 및 단가 2배 확대 인포그래픽

